



미국 벤처캐피탈의 최근 투자동향과 신산업 트렌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산업-글로벌 센터
2018. 03. 29

작성자: 최심건 선임연구원 (02-2173-0581)
책임자: 임재호 센터장 (02-2173-0583)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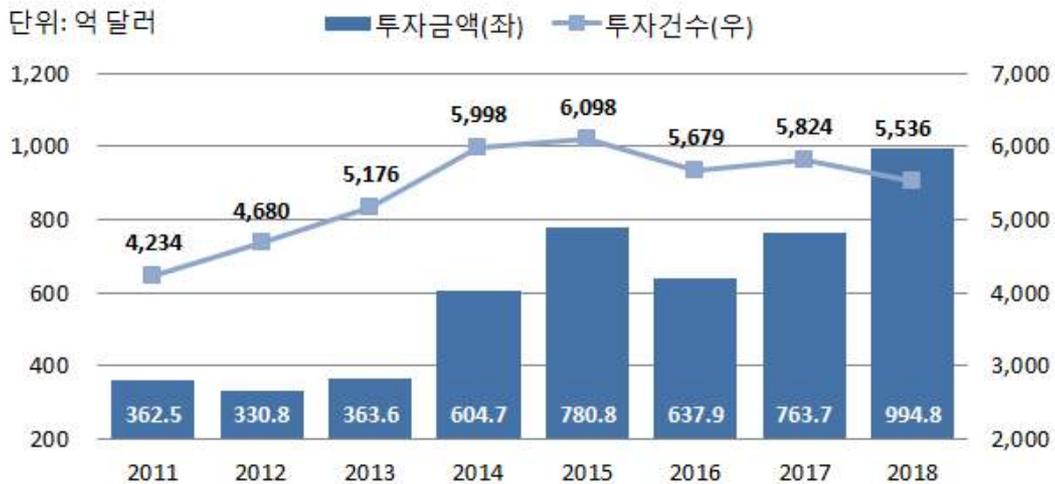
I. 미국 벤처캐피탈의 최근 투자동향	1
II. 신산업 부문별 투자 동향 및 트렌드	3
1. 헬스케어	3
2. 프롭테크(PropTech)	5
3. 모빌리티 서비스	6
III. 시사점	7
[붙임 1] 기업별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	8
[붙임 2] 미국 벤처캐피탈의 주요투자 분야 관련 국내 규제 동향	9

I. 미국 벤처캐피탈의 최근 투자동향

■ 2018년 미국 벤처캐피탈은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를 단행

- 미국 벤처캐피탈은 2018년 총 995억 달러를 투자하여 투자금액이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투자건수는 2013년 이래 가장 적은 5,536건을 기록¹⁾
- 1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전년대비 53% 증가하는 등 선도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건당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는 모습
 - 2013년 703만 달러였던 건당 투자규모는 2018년 1,708만 달러까지 증가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 및 건수 추이



자료: PwC/CB MoneyTree™ Report

■ 산업군별로 2018년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동향을 분석한 결과, 헬스케어, 프롭테크,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목할 만한 신산업으로 선정

- 헬스케어 부문은 최근 3년간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업종으로, 3년 평균 투자비중은 28.5%
- 프롭테크는 지난 2년간 투자규모가 연평균 148.5% 증가하여 최근 가장 빠르게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
-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는 투자금액 비중이 2018년 기준 8.0%(금액기준 79억

1) PwC&CB Insight, 「MoneyTree™ Report Q4 2018」, 2019.1.7

달러)로 크면서도, 2018년 투자금액이 전년대비 93.9%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임

분야별 미국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추이¹⁾ (단위: 억 달러)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 ²⁾	증가율	
				18년	CAGR (16-18년)
전체 투자	637.9	763.7	994.8	30.3%	24.9%
헬스케어	159.6	234.5	289.4	23.4%	34.6%
	(25.0%)	(30.7%)	(29.1%)		
프롭테크	11.3	38.2	69.6	82.0%	148.5%
	(1.8%)	(5.0%)	(7.0%)		
모빌리티 서비스	49.6	40.9	79.2	93.9%	26.4%
	(7.8%)	(5.3%)	(8.0%)		
사이버보안	26.7	38.2	44.8	17.4%	29.7%
	(4.2%)	(5.0%)	(4.5%)		
기타	390.7	411.9	511.8	24.2%	14.5%
	(61.2%)	(53.9%)	(54.1%)		

주 1) () 안은 투자금액 비중

2) 모빌리티 서비스와 프롭테크의 투자금액은 18.3Q 실적에 근거한 연간 추정치

자료: PwC/CB MoneyTree™ Report를 토대로 재구성

■ 2019년 미국 벤처캐피탈의 투자규모는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 되나 우량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늘어날 전망

- 투자건수는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이나, 벤처캐피탈 시장의 수급여건과 우량기업 위주의 투자 확대에 따라 전체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자금공급원인 벤처캐피탈 펀드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고, 자금 수요자인 기업들도 기업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투자유치 니즈가 증가
 -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은 위험성이 높은 신규창업기업보다는 기존 우량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는 추세
- 특히 2018년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헬스케어, 프롭테크,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의 움직임이 지속되어 2019년에도 3개 분야의 투자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II. 신산업 부문별 투자 동향 및 트렌드

1. 헬스케어

- 2018년 헬스케어에 대한 벤처투자는 289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투자금액이 23% 증가했으나, 투자건수는 1,270건으로 51건 감소
 - 헬스케어는 크게 질병치료와 관련된 전통 헬스케어와 의료서비스와 IT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로 구분
 - 2018년 헬스케어 투자에서 전통 헬스케어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 헬스케어에 비해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반면 2년간 투자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스마트 헬스케어가 40%로 최근 전통 헬스케어(33%)보다 다소 빠르게 투자가 확대 중
 - 전통 헬스케어 분야는 난치병 및 암 치료제 개발기업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유전자 분석 및 응용분야와 의료보험 핀테크 기업에 주로 투자

가. 전통 헬스케어

- 지난해 미국 벤처캐피탈은 전통 헬스케어 분야에 전년대비 24% 증가한 203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건수는 작년대비 52건 감소한 793건에 그침
 - 전통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질병치료를 위한 신약개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암, 난치병 치료제 개발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
 - 난치병 치료제 기업의 경우, RNA간섭²⁾을 통한 희귀병 치료제 개발기업인 Moderna Therapeutics가 5억 달러,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탈모와 관절염 등 퇴행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Samumed가 4.38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 올 1월에도 희귀 유전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BridgeBio가 3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
 - 암 관련 치료제 개발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활발하였는데, 암을 유발시키는

2) 질병을 일으킬 만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

단백질 억제제 개발업체인 Relay Therapeutics에 4억 달러, 혈액암 치료제 개발기업인 Allogene Therapeutics와 암 조기진단 기술 개발기업인 GRAIL에 각각 3억 달러가 투자

나. 스마트 헬스케어

■ 지난해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86억 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

-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의료·건강서비스와의 융합이 확산되고 있어,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확대

① 유전자 분석 및 응용

- 수요 증가, 관련 규제 완화로 유전정보 분석 서비스 분야가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기초학문인 합성생물학³⁾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어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확대
 -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2017년 4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10가지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하여, 유전자 분석 서비스 범위 확대를 견인
-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에 대한 유전자 보유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23andMe와 Helix에 각각 3억 달러와 2억 달러가 투자
- 합성생물학 기술을 연구하는 Zymergen도 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② 의료보험 핀테크

- 의료보험 핀테크 기업이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어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
 - 의료보험 핀테크 기업은 인슈어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저렴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여 최근들어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
 - 보험사들이 향후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보험 핀테크 기업이 기존보험사보다 확장성

3) 유전자의 조작 혹은 배열을 통해 원하는 세포를 만드는 학문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지며 새로이 등장

에서 우위

- 의료보험 핀테크 기업인 Oscar Health와 Bright Health는 지난해 각각 5.4억 달러,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
 - 2018년 3분기에는 Google의 지주회사인 Alphabet이 Oscar Health에 3.75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

2. 프롭테크(PropTech)

■ 2018년 프롭테크에 대한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70억 달러로 추산

- * 프롭테크에는 57%를 차지하는 공유사무실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탐색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O2O 서비스로 지칭
- 벤처캐피탈은 거래과정에서의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롭테크 분야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하여 투자가 확대
 - 최근에는 기존의 부동산관련 기업들도 기술 확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 부동산컨설팅사 JLL, 부동산개발사 RXR Realty, 부동산투자사 Brookfield 등은 2018년 1-3억 달러를 프롭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

■ [공유사무실] 지난해 공유사무실에 대한 투자는 40억 달러로 추정

- 부동산 보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계약을 선호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공유사무실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집행
 - 초기 자금이 부족하고 사업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무실을 직접 임대하는 대신에 계약이 유연한 공유사무실에 대한 활용이 증가
- 2018년 세계적인 공유사무실 기업인 WeWork에 대한 투자는 2017년 대비 63% 증가한 40억 달러를 기록
 - WeWork는 2019년에도 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 [O2O 중개서비스] 2018년 O2O 중개서비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30억 달러로 추정

- O2O 중개서비스 기업은 부동산 관련 탐색비용을 절감시키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어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확대
 - 수요자는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앱을 통해 부동산을 방문하기 이전에 필요한 정보의 상당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탐색비용이 축소가 가능
 -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유지·관리되는 스마트계약 방식이 도입될 경우 중개인의 역할이 축소로 중개수수료 절감도 가능하여 O2O 중개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
- 부동산 중개기업인 OpenDoor에 2018년 총 7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단행
 - OpenDoor는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 가격을 매도자에 제시하고 주택을 매입 후 수리하여 매수 희망자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운영 중
 - 2019년 초 OpenDoor는 추가적으로 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3. 모빌리티 서비스

- 2018년 중 미국 벤처캐피탈은 모빌리티 서비스 부문에 약 79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94% 증가한 수준
 - 모빌리티 서비스는 크게 차량공유와 자율주행 부문으로 구분되며, 지난해 벤처캐피탈 역시 두 부문 위주로 투자를 집행
 - 차량공유 기업은 사업 확장단계에서 대규모 투자의 니즈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의 경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
- [차량공유] 지난해 차량공유 대표기업인 Uber와 Lyft는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 투자액의 약 32%에 해당하는 25.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진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사업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분야 투자규모가 증가
 - 2018년 투자금액이 대부분 건당 5억 달러를 상회할 만큼 대형화
 - 글로벌 최대 차량공유 기업인 Uber에 대해 17.5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 중인 Lyft도 8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

- 2017년 Uber와 Lyft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21억 달러로, 2018년 투자규모가 21% 증가
- 두 기업이 대규모 IPO를 앞두고 있어 상장 이전에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집중된 것도 올해 투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작용

■ [자율주행] 지난해 자율주행 부문에 대한 1억 달러 이상 대형투자의 규모는 7억 달러로, 아직까지는 상용화 수준이 앞선 차량공유 분야에 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가 미미한 수준

- 자율주행 시장은 상용화된 기술을 먼저 개발한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앞선 선도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후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투자금액이 증가
- 2018년에도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앞선 자율주행 기술개발 기업인 Zoox와 Pony.ai에 각각 5억 달러, 2.1억 달러의 투자가 집행
 - 금년 들어서는 후발업체인 Aurora에 대해서도 5.3억 달러가 투자
- 한편 자율주행기술(무인자동차)을 활용한 식료품 배송 서비스 업체인 Nuro가 2019년 9.4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중

III. 시사점

- 미국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주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글로벌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과거 스마트폰처럼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헬스케어, 프롭테크,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전망
- 우리나라에서는 신산업 분야 투자가 관련규제로 인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나,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관련 투자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붙임2 참고)

붙임1 | 기업별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

2018년 기업별 자율주행 운행 데이터

기업	누적주행거리	운전자 개입 횟수	운전자 개입 1회당 주행거리
Waymo	1,271,757	114	11,156
GM Cruise	447,621	86	5,205
Zoox	30,764	16	1,923
Pony AI	16,356	16	1,022
Nuro	8,084	17	476
Nissan	5,473	26	211
Baidu	18,093	88	206
AlMotive	3,428	17	202
AutoX	22,710	119	191
WeRide	15,675	89	176
Roadstar	7,539	43	175
Aurora	33,158	379	87
Drive ai	4,617	55	84
PlusAi	10,816	199	54
Nulmax	3,036	68	45
Phantom AI	4,149	200	21
NVIDIA	4,142	206	20
SF Motors	2,562	232	11
Telenav	30	5	6
BMW	41	9	5
CarOne(Udelv)	219	57	4
Toyota	381	150	3
Qualcomm	240	100	2
Honda	168	77	2
aiPod	32	16	2
Mercedes Benz	1,749	1,194	1
SAIC	634	526	1
Apple	79,745	69,510	1
Uber	26,901	70,165	0

주: 자료는 캘리포니아주 내의 주행기록만 포함; 거리단위는 천 마일

자료: 캘리포니아 차량국

붙임2 | 미국 벤처캐피탈의 주요투자 분야 관련 국내 규제 동향

-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프롭테크,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사업영역과 투자유치가 제한적인 실정
 - (헬스케어)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는 대상을 소수 항목으로만 한정하고,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협진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
 - 국내에서 DTC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항목은 탈모, 체질량 지수 등 질병과 연관성이 낮은 12개 항목, 검사가능 유전자는 46개로 한정
 - 원격의료의 경우 의료인 간 원격협진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의사-환자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음
 - (프롭테크) 서비스 공급자의 겸업 금지로 인해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며, 부동산업은 벤처창업 지원업종에서 제외
 - 부동산업의 경우 주택임대관리업, 중개업, 감정평가업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프롭테크 기업은 해외와 같은 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 불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국내 벤처캐피탈의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
 - (모빌리티 서비스)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전제로 하여 자율주행차를 불법으로 간주
 - 국내 기업 토르드라이브의 경우 자율주행차 스누버를 개발하였지만 규제에 따른 투자 부족을 이유로 2017년 거점을 실리콘밸리로 이동